■ 민족문화연구 제84호(2019.08.3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505-533.
http://doi.org/10.17948/kcs.2019..84.505

3.1운동기 총독부기관지『서울프레스』의 국제사회 대응 양상*

—*The Korean "Independence" Agitation - Articles Reprinted from the "Seoul Press"* (1919.5)를 중심으로—

박보영(朴寶英)**

목 차

1. 머리말
2. 서울프레스의 재생산과 조직적 확산
3. 서울프레스의 3.1운동 인식과 대응
4. 맺음말

국문초록

총독부 기관지『서울프레스(Seoul Press)』는 국제사회 공론의 장에 한 구성원으로서 발언을 하고, 동아시아 영어 매체 네트워크에서 쏟아내는 갖가지 배일(排日) 여론을 방어해내는 대항담론의 기지 역할을 수행했다. 1919년 3.1운동이 발발하자, 서울프레스는 긴급 기사 묶음으로 소책자『한국의 독립선동(The Korean "Independence" Agitation—Articles Reprinted from the "Seoul Press")』을 출판하여 배포했다.

* 이 논문은 2018학년도 경북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 지원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북대 사학과 계약교수.

3.1운동이 식민 당국의 예상을 뛰어넘어 전국화・장기화되고 국내적 상황을 넘어 대외 여론에서 '진압의 폭력성'에 대한 비난이 폭등하고 선교사를 중심으로 한 종교탄압 주장으로까지 확대되자, 기사복제본 형식의 긴급 소책자를 동원하여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섰던 것이다. 이렇게 발간된 소책자 등의 식민지 한국 관련 정보는 동아시아 영어 매체 네트워크는 물론 국제여론의 집결지 미국 내에서 조직적으로 배포되었다. 미국 내 일본 여론전의 기지는 뉴욕을 중심으로 한 동양정보국(1909)-동서뉴스국(1913)이었고 이들 기관의 설립자 및 주요 필진들이 서울프레스 출신들이었다.

서울프레스는 첫째 3.1운동세력과 서양인 선교사를 분리하여, 운동의 세력을 약화시킴은 물론 이념적 정당성을 소거하고, 둘째, 대외적으로 유포된 폭력적 진압의 실태는 일방적으로 과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의 승인하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셋째, 3.1운동은 한국인들의 주체적인 자각에 의한 운동이 아니라, '민족자결주의'의 오해에서 비롯된 소동에 불과하고, 전 국민적 운동이라기보다 일부 선동자들의 조작된 운동이라는 논지를 펼치는 전략으로 대응했다.

일본의 국제사회 여론전의 목표는 결국 국제사회에서 전승국으로서 한몫 끼이기 위한 자기가치 증명의 필요성과 제국의 통치능력에 대한 중간성적표라 할 수 있는 3.1운동에 대해 국제여론의 방향을 돌려놓는 것이었다. '민족자결주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외인론'과 식민통치의 실패라는 '내인론'의 갈등은 주지하다시피 3.1운동 이후 더욱 적극적인 국제여론전의 명분으로서 '문화정치'로 포장되었다.

주제어: 3.1운동, 서울프레스, 선교사, 민족자결주의, 국제여론.

1. 머리말

『서울프레스(Seoul Press)』는 통감부 시기인 1907년 창간되어, 1930년 경성일보로 통합을 거쳐 1937년 폐간된 조선총독부 기관지이다.[1] 영어 일간

1) 『서울프레스』는 영국인 존 하지(John W. Hodge)가 1905년 6월 창간한 『서울프레스 위클리(The Seoul Press Weekly)』를 통감부가 인수하여 1906년 12월 5일부터 일간지로 재창간된 후 1907년 3월 5일(22호)로 본격 재간되었다. 1대 즈모토 모토사타(Zumoto Motosada, 1906년 -1909년), 2대 혼다 마스지로(Honda Masujiroh, 1909년-1910년), 3대 야마가타 이소오(Yamagata Isoh, 1917년-1925년)가 사장을 역임했다. 1930년 2월 총독부기관지 『경성일보(京城日報)』에 통합되었고, 1937년 5월 30일 제9089호를 마지막으로 폐간했다. 정진석, 『언론조선총독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46-54면. 논자에 따라 1909년부터 2대 야마가타 이소오가 경영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야마가타는 1917년부터 1925년까지 3대 사장이고, 2대 사장은 혼다 마스지로로 확인된다. Harry E. Wildes, *Social Currents In Japan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press*, The University

지의 독자층이 두텁지 않았던 시기[2], 막대한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서울프레스를 유지해온 배경은 당시 국제사회 공론의 장에 한 구성원으로서 발언을 하고, 동아시아 영어 매체 네트워크에서 쏟아내는 갖가지 배일(排日) 여론을 방어해내는 대항담론의 기지 역할을 서울프레스가 수행한 데에 있다. 서울프레스는 한국[3] 뉴스를 자원으로 하는 한국 내 발행신문이지만 그 발화의 대상범위는 한국을 넘어 동아시아 영어매체 네트워크, 나아가 국제사회 및 국제여론의 집결지 미국을 향한 발언이라 할 수 있다.

실상 당시 한국 내 서울프레스의 주요 독자층을 이루었던 미국인 선교사는 단순한 선교사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국가'를 과시하는 '유력 집단'이었다. '유력 집단'으로서의 선교사와 식민 당국자 사이의 긴장관계는 곧 미일관계의 역사성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러일전쟁 후 포츠머스조약(Treaty of Portsmouth, 1905)을 중재하는 등 동북아 균형과 미일관계에 공을 들였으나, 당초 미국이 기대한 만주의 개방(Open Door)은 유지는커녕, 일본 상업자본의 독점적 지배에 밀려 영·미권 상인들은 쫓겨나다시피 했고 일본은 1907년 다시 러시아와의 비밀조약을 선택했다. 때마침 미국 서부지역에서 폭등하고 있던 일본인 이민자에 대한 혐오가 미국 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항간에는 미일 간에 전쟁이 나리라는 소문마저 파다했다.[4]

러일전쟁 후 보호통치와 군대해산 등 어수선한 정치상황에 뒤숭숭한 한국인들에게 선교사들은 "미국의 문명이 일본의 문명보다 크다. 우리에게 부탁하면 모든 일이 안전하게 보호된다.", "미국과 일본은 곧 전쟁을 하게 될 것이며, 강대국인 미국은 일본을 이기고 한국을 구제할 것이다."라고 외쳤고,[5] 한

---

of Chicago Press, 1927, p.272; Peter O'Connor, *English-Language Press Networks of East Asia, 1918-1945,* Leiden: GLOBAL ORIENTAL, 2010 참조.

2) 1925년 Seoul Press는 가격은 5전(錢), 발행부수는 1,000부가 채 되지 못했다. Harry E. Wildes, Op. cit, p.274. 서울프레스 구독자는 거의 서양인이었는데, 600명이 조금 넘는 숫자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앞의 책, 42면 참조.

3) 한국이라는 국명은 시기에 따라 달리 호칭되어야 하겠지만, 본고의 논지가 국제여론 안에서의 '한국'이므로 명칭을 한국으로 통일하고자 한다.

4) 러일전쟁 관련 미일관계의 전개에 관한 논문은 다음을 참조. Masato Matsui, "The Russo-Japanese Agreement of 1907: Its Causes and the Progress of Negotiations", *Modern Asian Studies*, Vol.6, No.1, 1972, pp.33-48.

국인들은 구세군(救世軍) 모금함에 동전을 털어 넣는 것이 국가를 위한 군자금 모금의 일환인 줄로 여겼다.[6] 이렇듯 선교사들은 국가 대 국가의 힘의 우위를 전유하여 미국=기독교=구원이라는 대중조작을 통해 선교기반의 확장을 꾀했고, 통감부는 그러한 선교사들의 대중 선전행위를 긴밀하게 사찰했다.[7]

1910년 강제 병합 후 선교사들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수용하며 보수적 선교 기조로 돌아가는 듯했다. 그러나 총독부의 식민지 장악이 무단통치라는 강력한 억압정책으로만 일관하게 되자 선교사집단은 부지불식간에 식민지배의 일상화에 균열을 일으키는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게 되었다. 특히 근대 병원 설립을 통한 의료사업과 대학(연합college) 설립운동으로 상징되는 교육사업 등에서 총독부의 해당 예산 범위를 넘어서는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다.[8] 간접선교의 물적 동원과 문화적 파급의 후속효과는 총독부의 무단통치에 대한 식민지민들의 불만이 유형화될 수 있는 잠재요소가 되기에 충분했고 총독부는 경계심을 늦출 수 없었다. 이러한 선교사에 대한 총독부의 인식과

---

5) 「宣教師及基督教ニ関スル書類」, 『統監府文書』 卷1; 「憲兵隊機密報告」, 『統監府文書』 卷6.

6) *Die Chronik der Benediktiner—Mission von St. Ottilien,* St. Ottilien, 1910, 17f. 1909년 한국에 진출한 독일선교사들은 한국에서 구세군의 놀라운 성장세에 대해 이렇게 보고한다. "한국에서 구세군이 성공하고 있는 하나의 요인은 한국 사람들은 구세군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병사가 아니라 일본군을 상대로 하는 군대라고 믿기 때문이다." 또한 「憲機第一四〇九號」(1909년 07월 12일), 『통감부문서』 6권에는 '救世軍의 상황'을 보고하면서 구세군이 대중들에게 선전하는 바를 아래와 같이 요약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정세를 보건대 古來의 습관을 유지하고 현재의 상황을 고수하는 것은 한국으로서는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이를 개발하려고 함은 홀로 救世軍이 있을 뿐이다. 이제 한국인으로 차제에 각성하지 않는다면 일본인으로부터 더욱더 압박을 받게 되고 지금 이를 방어하려면 즉 救世軍의 힘을 빌려서 일본의 압박을 배제하여 국권회복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救世軍에 가맹하여 사무원 혹은 서기가 되는 자에게는 봉급을, 자산이 없는 자에게는 자금을 주어 각자 희망하는 업무에 종사시켜서 한국인을 구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7) 「七. 宣教師及基督教에 관한 書類」, 『統監府文書』 1권; 「憲兵隊機密報告」, 『統監府文書』 6권; 「八. 基督教狀況」, 『統監府文書』 8권 등은 선교사 사찰 보고문이다.

8) 1916년 총독부 세출항목 중 민정교육문화 부분은 2,800,000엔으로 전체예산 59,2000,000엔의 5%였다. 정용석, 「1911-1936년간 총독부재정의 운용방식에 대한 일고찰」, 『경제사학』 제41권 3호, 경제사학회, 2017, 405면. 그나마 교육 관련 재정은 전체 학교에서 소요되는 실제비용의 27-38%에 불과했다. 즉 나머지 73-62%는 식민사회에서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었다. 정준영 「경성제국대학과 식민지 헤게모니」,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9, 132-136면 참조. 반면 선교사들의 교육사업 단일 예산 규모만으로도 그 액수는 훨씬 상회하는 것이었다. 1909년 록펠러는 중국과 일본, 특히 한국 선교학교 설립을 위해 200만 엔을 기부했다는 보도가 있다. *Die Katholischen Missionen,* Freiburg: Herder, 1909/1910, S.61.

정책적 의지를 발언하는 거의 유일한 매체가 서울프레스였다.

1919년 3.1운동이 발발하자, 서울프레스는 긴급 기사 묶음으로 소책자『한국의 독립선동(*The Korean "Independence" Agitation—Articles Reprinted from the "Seoul Press"*)』(1919.5, 이하『독립선동』으로 약칭)[9]을 출판했다. 이 소책자는 1919년 3월 14일 자부터 5월 7일 자까지 서울프레스에 실린 3.1절 관련 기사 23편과 부록에 해당하는 서대문형무소 탐방기(1919.5.11.), 그리고 탐방기 기사에 대해 한 서양인 특파원이 보내온 편지(1919.5.16.)를 첨부하여 본문 총 35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간지로서 지면 신문은 뉴스로서의 유통기한이 짧고, 하루만 지나도 벌써 묵은 정보가 되지만, 선별적으로 묶여 책으로 편집된 신문기사들은 기획의도에 부합하는 유용한 발언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보의 활용 면에서도 훨씬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었다. 3.1운동이 식민 당국의 예상을 뛰어넘어 전국화・장기화되고 국내적 상황을 넘어 대외 여론에서 '진압의 폭력성'에 대한 비난이 폭등하고 선교사를 중심으로 한 종교탄압 주장으로까지 확대되자, 서울프레스는『독립선동』과 같은 긴급 소책자를 동원하여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이는 일본이 3.1운동을 전승국으로서 국제사회에 한몫 끼이기 위한 자기가치 증명에 대한 흠결이자 제국의 통치능력에 대한 중간성적표로서 인식하고 국제사회 안에서 대응해나가는 양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본고는 동아시아 영어 매체 네트워크를 수개월에 걸쳐 뜨겁게 달구었던 3.1운동과 그에 대한 서울프레스의 발언 및 유포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3.1운동에 대처하는 조선총독부의 논리와 국제사회 대응 방식을 규명하고자 한다.

서울프레스에 대한 연구는 매우 희소하다. 식민지시기 관제언론은 식민당국의 정책 홍보 수단에 불과하다는 인식 때문에 연구 대상으로서의 흡인력이 덜했던 것이 사실이다. 언론학계에서 다루어진 연구는 서울프레스 발행과정 및 편집인의 변동 상황, 재창간과 폐간에까지 이르는 간략한 서술을 통해 한

9) Seuru Puressusha, *The Korean "Independence" Agitation—Articles Reprinted from the "Seoul Press"*, Seoul Press, 1919a.

국 언론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밝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10] 역사학적 관점에서는 통감부 시기 서울프레스의 사설을 동시대 반일언론인 대한매일신보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총독부의 대 선교사정책을 드러내고 있는 권휘민[11]과 서울프레스가 '식민-문명 담론'이 구현되는 한 장(場)으로서 식민통치의 정당성 확보의 도구로 기능했다는 신 데니(Sean Denny)[12]의 연구가 있다. '대한제국기 영자 언론들의 국가이미지 형성'에 대한 김지형[13]은 『대한매일신보(The Korea Daily News)』 등 당대 영자 언론들을 분석하면서 그 대척점에 있는 식민 세력의 한국 이미지 형성에 관한 검토로 서울프레스를 부수적으로 다루고 있다.

서울프레스를 한 국가 영역 내의 단일한 언론매체로 접근하지 않고 동아시아 영어권 매체 네트워크의 시각에서 규명하는 Peter O'Connor[14]의 *English-Language Press Networks of East Asia, 1918-1945*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주목할 만하다. 1900년대 초부터 태평양 전쟁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전해지던 동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이미지는 네트워크 간의 경쟁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오코너는 정보의 식민지화를 의도했던 일본 외무성 네트워크와 동아시아의 다국적 네트워크 사이의 실질적인 경쟁관계가 동아시아 정보를 주도했다고 보고, 그 역사적 맥락을 시기별로 분석하면서 그중 한 축으로서 서울프레스를 다루고 있다. 이는 결국 통신사를 국가기구로 인식했던 일본 제국주의의 언론장악과 태평양전쟁으로 종말을 맞는 과정을 드러내는 작업이지만, 언론장악을 통해 일본이 이루고자 했던 목적, 즉 외부세계로 송출되는 일본에 대한 이미지의 통제와 국제사회에 대한 일본의 의견 제출이 결국 처음부터 미국에 대응하는 방식의 '영어 매체'에서부터 출발한다는 데 착안하고 있다.

---

10) 정진석・홍순일, 『한국영어신문사』,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정진석, 앞의 책.
11) 권휘민, 「통감부의 선교사 정책과 『서울프레스(The Seoul Press)』」,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16.
12) Sean Denny, "The Tapestry of Colonial Communication: Colonizing Discourses in the Seoul Press", Degree of Master, Graduate Department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Toronto, 2010.
13) 김지형, 「대한제국기 영자언론의 한국인식과 표상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6.
14) Peter O'Connor, op. cit.

2. 서울프레스의 재생산과 조직적 확산

1) 서울프레스의 기사복제본 소책자 생산과 배포

3.1운동기 서울프레스의 기사를 묶어『독립선동』을 편집한 날은 5월 15일, 발행일은 5월 20일이다. 저작 겸 발행자는 당시 서울프레스사 사장이었던 야마가타 이소(Yamagata Isoh),[15] 인쇄소는 서울프레스사이며 정가 20전(錢)으로 되어있다. 서문에는 "이미 인쇄한 책자가 다 매진되고도 여러 곳에서 요청이 있어 다시 재발간 한다."(1919.5.15.)라고 쓰고 있다. 서울프레스의 구독자층 자체가 소수에 불과한데, "이미 인쇄한 책자가 매진"될 정도의 소비를 나타내는 이 책자의 유통 양상은 이것이 식민지 한국 혹은 그 주변 동아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근거리 여론 매체 이상의 것임을 말해준다. 실제 해외 언론에서 이 책자에 대해 논평하는 바를 찾을 수 있다. 런던발 주간지『런던 차이나 익스프레스(London and China Express)』1919년 9월 14일 자는 아래와 같은 짧은 서평을 붙이고 있다.

> *The Korean "Independence" Agitation'* 20전, 무료 우송
>
> 『한국의 독립선동(*The Korean "Independence" Agitation'*)』은 서울프레스에서 발간한 흥미로운 소책자이다. 그 내용은 서울프레스에 처음 등장한 일련의 기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사들에서 특히 흥미로운 부분은 시위에 참여한 한국인들에게 가해진 잔학 행위에 관한 이야기에 다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준다는 것이다. 폭동에 맞선 경찰과 다른 사람들이 저지른 과잉진압이 일본 정부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가 제시된다. 또한 일본인에 의해 저질러진 잔혹한 이야기의 많은 부분이 일본인에 대한 강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과장되었다는 사실과 야만적 행위가 언제나 한쪽 편에만 있지는 않았다는 사실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강자보다는 약자에 공감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성향이 우리의 공정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소책자는 과거에 편견과 열광으로 인해 왜곡되었던 사건에 대해 전적으

15) 1895년 동경제국대학 영문과 졸업. 1895년 만세보사(萬朝報社)에 입사한 후 주필로 활동했다. 1917년 3월 서울프레스 사장 겸 주필이 되었고 1925년까지 재직했다. 3.1운동 발발 당시 서울프레스 사장이었는데, 한국의 무단통치를 비판하고, 군사력을 동원한 정치가 더 길어질 경우 사임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Harry E. Wildes, Op. cit, p.274.

로 공정해 보이는 것을 제공함으로써 유용한 목적을 달성한다.[16]

위 논평은『독립선동』발간 5개월 후인 1919년 10월, 역시 서울프레스에서 같은 형식으로 펴낸 소책자『한국의 행정개혁(*Administrative reforms in Korea*)』서문에 대형 광고 형식으로 소개되어 있다.[17] 즉 서울프레스가 취한 국제사회 여론 전략의 의도대로, 경찰의 과잉진압 등 잔혹행위는 일본 정부의 승인에 의한 것이 아닌, 일부 경찰과 군인들이 폭도들의 무질서하고 자극적인 행동에 맞서 본능적으로 행해진 것이라는 점, 그러한 과잉진압의 배경 원인이 되는 지점에는 폭도들의 폭력성이 있으며 한국인들만이 일방적인 동정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잔학행위에 대한 이야기는 일본인에 대한 강한 편견을 가진 이들에 의해 과장되었다는 점 등에 주목하는 부분을 두고, 국제 여론으로부터 새로운 방향의 관심을 얻어내는 데 성공한 것처럼 대문짝만하게 서문에서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18]

『독립선동』의 후속적 성격을 띠는『한국의 행정개혁』또한 간략한「발간사」를 책머리에 붙이고 있는데 "이 팜플렛은 1919년 8월 신임 사이토(Saito) 총독과 함께 재조직된 조선총독부의 행정 개혁을 다루는 서울프레스의 주요 기사를 담고 있다. 편집자는 독자들이 이를 통해 반도의 상황과 이에 부응하

16) Seuru Puressusha, *Administrative reforms in Korea*, Seoul Press, 1919b, 서문.

17) *Administrative reforms in Korea*는 앞선『독립선동』의 후속에 해당하는 팸플릿으로 3.1운동 후 들어선 새 정부의 개혁 설계도를 제시하고, 한국의 안정과 상황변화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한 발간의도를 갖고 있다. 31개 기사 본문 74면으로 이루어진 이 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임 총독의 공약, 조선의 사회복지정책, 경찰제도의 개혁, 조선인 관리들의 급여 조정, 3.1운동과 선교사들과의 관계에 대해 논평하는 우사미 내무국장의 인터뷰.

18) 이러한 여론전의 효과가 당시 국제사회 안에서 어느 정도 발휘되었는지 여부는 별도의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단, 한 예로 3.1운동 발발 후 1년도 훨씬 지난 1921년 7월 8일 자 호주의 한 지역 신문에서 다루어진 3.1운동 관련 기사를 보면『독립선동』에서 주장하고 있는 '폭력진압에 대한 정부의 미승인'과 '과장된 이야기'라는 논조가 반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선교사 혹은 저널리스트로서 동아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던 다수의 필자들이 제공하는 이러한 종류의 기사들은 '폭력진압'의 실상을 전달하는 데는 충실하지만 그 진압행위의 불법성이나 국가권력 차원의 책임 요소에 대한 논평에서는『독립선동』의 주장대로 '정부의 미승인'이라는 단서가 따라붙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Mr. F. G. Stubbs,「Tortured and Massacred. INSIDE HISTORY OF THE KOREAN HORROR」, The Richmond River Herald and Northern Districts Advertiser, 1921.7.8, https://trove.nla.gov.au/newspaper/page/13656599(2019.07.03 검색).

려는 정부의 조치들에 대해 알게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히고 있어, 독자 대상이 반도 외부의 영어권 독자임을 알려준다. 또한 내용면으로나 형식면으로나 연속성을 지니는 이 두 책은 일련의 시리즈출판물임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서울프레스의 지면신문이 국제사회에 직접 노출되지는 않았으나 그때그때 시의성 있는 기사들을 복제한 소책자 형태로 꾸준히 생산, 유포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행정개혁과 경제향상 등을 선전하는『조선의 개혁과 진보에 관한 연례보고서(*The Annual Report on Reforms and Progress in Chosen*)』는 미국에서 정기적으로 배포되었다는 증언이 있다.[19]

2) 일본의 국제여론 기지 활동과 3.1운동기 미국 여론

아시아의 다국적 매체 네트워크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정보들의 비우호적인 요소들을 국가 차원에서 통제할 수 없었던 일본은 적극적인 방어책으로써 국제여론의 중심지인 영・미권 여론전을 수행할 다른 전략이 필요했다. 그것이 곧 워싱턴과 뉴욕의「동양정보국(Oriental Information Bureau, 1909)」[20] 설립으로 나타났다.「동양정보국」창립을 위해 투입된 인력이 당시 서울프레스 1대 사장에 재직 중이던 즈모토 모토사타(Zumoto Motosada)였다. 즈모토의 후임으로 1909년부터 서울프레스를 맡고 있던 혼다 마스지로(Honda Masujiroh) 역시 1년 만에「동양정보국」합류를 위해 뉴욕으로 파견되었다. 1913년 일본인이 캘리포니아에서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금하는 '외국인 토지법'(Alien Land Act

19) Chung, Henry, *The Case of Korea: a collection of evidence on the Japanese domination of Korea, and on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New York: Chicago [etc.] Fleming H. Revell company, 1921, p.243.

20) 'Oriental Information Agency'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던 이 기관은 1913년「동서뉴스국(East and West News Bureau)」으로 재편되었다.「동양정보국」과「동서뉴스국」설립에 대해서는 Peter O'Connor, Op. cit, pp.32-34 참조. 이 외에「동서뉴스국」의 여론 활동에 대해서는 Flowers, Montaville, M.A, *The Japanese conquest of American opinion*, New York: George H. Doran, 1917, pp.106-114 참조. 1917년 출판된 Flowers의 이 책은 미국 내 '일본문제'를 다루는 비학술서적으로서 미국인들의 '계몽된 애국심'과 반일본 정서를 보여주는 대표적 저서 중 하나이다. 특히 Flowers는「동서뉴스국」이 언론사가 아니라 선전국이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Flowers의 저서에 대한 서평은 PAYSON J. TREAT, *Journal of American History*, Vol.4, 1917, pp.237-238.

of 1913)이 통과되었다. 이에 일본은 더욱 강력한 선전활동이 필요하다고 보고, 뉴욕과 워싱턴의 「동양정보국」을 폐쇄하고 「동서뉴스국(East and West News Bureau)」 체제로 전환하였다. 종래 「동양정보국」에서 한국 및 일본 관련 정보지 배포를 담당하는 한편 잡지 『오리엔탈 리뷰(Oriental Review)』 발간 등, 포괄적이고 우회적인 여론 형성에 초점을 두던 전략에서 탈피하여 본격 뉴스 편집 및 공급체제를 갖추고 공격적 여론 전략으로 전환한 것이다.[21]

「동서뉴스국」은 "매달 3,000장 이상의 정기 간행물을 출판하여, 미국 내 1000여 개의 도서관, 500여 명의 언론 편집인, 500명의 대학 총장, 상업 기관 및 미국 의회 의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포"했다.[22] 한편으로는 일본 관련 뉴스를 각 기관에 공급하고, 한편으로는 러일전쟁 이후 가속화되는 일본의 군비확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평화주의 옹호와 '인종차별철폐' 의제로 포장된 여론전을 펼쳤다. 도쿄와 서울에서 생산된 뉴스의 편집 외에 새로 추가하게 될 기사들의 필진으로는 「동서뉴스국」 국장을 맡았던 토요키치 이네야가(Toyokichi Iyenaga)가 대표적 인물이었다.[23]

「동서뉴스국」은 맨해튼에서 설립된 「일본학회(Japan Society, 1907)」와 강력한 연대하에 활동했다. 회원이 천여 명에 달하는 「일본학회」는 평회원

---

21) Peter O'Connor, Op. cit, pp.37-38 참조. 동시에 동아시아 뉴스 네트워크의 중심지 도쿄에는 일본으로부터 외부로 송출되는 정보를 본격 장악하고 개입하기 위한 「국제통신사(國際通信社, International News Agency)」가 설립되었다. 일본 외무성의 준 기관지였던 『재팬 타임스(Japan Times)』 사장 러셀 케네디(Russell Kennedy)와 일본 자본가 시부사와 에이치(Shibusawa Eiichi), 외무성의 마키노 노부아키(Makino Nobuaki) 등이 합작한 작업이었다. 나아가 1920년대에는 「국제통신사(International News Agency)」와 『재팬 타임스』를 중심으로 일본 국내는 물론이고 중국과 만주지역의 영어매체에 대한 인수 합병 작업을 거쳐 일본 외무성네트워크로 확장하게 된다. 이로써 도쿄의 「국제통신사」 및 『재팬 타임스』, 서울의 『서울프레스』, 뉴욕의 「동서뉴스국」이라는 국제여론기지의 삼각체제가 구축되었다.

22) Flowers, Montaville, Op. cit, p.108.

23) Toyokichi Iyenaga(East and West News Bereau Director)는 *American-Japanese Relations: An Inside View of Japan's Policies and Purposes,* New York: F.H. Revell, 1912; *Japans Real Attitude Toward America*, G.P. Putnam's Sons, 1916; "Japan, America and Durable Peace", in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72, 1917; *Japan and World Peace,* New York: Macmillan, 1919 등 주로 미・일관계와 미국 내 '일본문제'를 다루는 많은 저서를 남겼다. 이네야가의 미국 내 활동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는 글은 Flowers, Montaville, Op. cit 참조.

외에도 평생회원이나 자문단 등에 미국인 사업가, 학자, 의사 등 미국 내 유력자들을 대거 포함시켜 미국과 일본의 우호적인 협력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했다.[24] 다음은 뉴욕의 「일본학회」 회보에 실린 「동서뉴스국」의 구독회원 모집 광고이다.

> 뉴스 소식지를 구독해주십시오.
> 「동서뉴스국」은 거의 1년 동안 주간지를 발행했으며, 최신 신문과 일본의 다른 간행물에서 추출한 최고의 관심사들로 압축된 뉴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일본학회 회원들이 기부하는 연 1달러 회비는 우편요금과 인쇄비에 충당하고자 합니다 (…) 「동서뉴스국」에 1달러를 내시면 당신의 이름이 신문의 발송주소록에 올라갈 것입니다.[25]

구독자들의 연 1달러 회비는 우편료와 인쇄비에 충당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일본학회」의 후원자는 1,000달러 이상 기부자로서 러일전쟁 당시 2억 달러 차관을 내주기도 했던 뉴욕의 은행가 쉬프(Jacob Henry Schiff), 제너럴 일레트릭사의 초대 회장 코핀(C. A. Coffin)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일본학회」 회원들의 연회비는 평생회원은 100달러, 일반회원은 10달러, 미국 내 비거주자는 연 5달러였다. 「일본학회」가 미국 내 여론전을 위해 소요했던 비용은 연 1만 달러를 상회한다는 주장이 있다.[26]

3.1운동 시기 미국 내 여론은 더욱 긴장이 높았다. 미국 언론에는 3월 중순부터 이미 도쿄와 상해의 국제통신사로부터 들어온 3.1운동 관련 갖가지 보도들이 튀어나왔다. 기사들은 '단순 폭동'에서부터 '1만 명 학살'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보도 통제와 금기에 대한 거대한 반작용과도 같이 오히려 종잡을 수 없이 위험해져 갔다.[27] 단순보도 이상의 여론전의 양상으로 가는 대표

---

24) 일본학회의 1920년 10월 회보에는 회원의 50%에 해당하는 약 600여 명이 연회비를 납부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Japan Society (New York, N.Y.), *About Japan*, New York: The Society, 1920, p.3.
25) Flowers, Montaville, Op. cit, p.112.
26) Ibid, p.107.
27) 신문 아카이브에서 1919년 3월을 검색했을 때 '한국' 관련 기사는 미국에서만 1,336건이 검색된다. 아카이브는 모든 신문을 등재하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주말 단위 지면만 제공하고 있어, 이 또한 매우

적인 사례는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 3월 20일 자 사설로, 같은 시기에 영국 식민지였던 이집트와 일본 식민지 한국을 비교하는 논설이었다. 이집트와 한국, 양국 모두 자립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식민지로 전락한 것인데, 일본의 통치가 가혹하다고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오히려 효율적이며, 잠시 동안 외부에 의한 계몽적인 통치를 받는 것이 세계에 유익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28] 5월에는 미국 내 대표적인 친일 인사인 예일대학의 라드(George T. Ladd) 교수와 상해 임시정부 외무 위원이자 대한인국민회 공동대표였던 정한경(Henry Chung)의 반론, 다시 이어지는 재반론 등이 다루어졌다.[29]

미국과 캐나다 선교사들의 편지와 보고서로 구성된 『한국 상황(*Korea Situation*)』[30] 초안은 이미 4월 16일 한국으로부터 도착한 캐나다장로교회 해외 선교부 총무 암스트롱(A. E. Armstrong)에 의해 전달되었으나, 장로교 동양관계위원회는 "한국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정치문제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오히려 일본정부 당국자들과 직접 교섭하여 "조

제한적인 통계라 할 수 있다. 물론 단어검색의 한계에 따라 동일 기사 안에 다층적으로 '한국'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을 수도 있으나, 그만큼 '한국'에 대한 발언 빈도가 높았던 시기라고도 할 수 있다. 「korea」, Newspaperarchive, https://newspaperarchive.com/tags/korea/(2019.07.03 검색).

28) "Egypt and Korea", *New York Times*, March 20, 1919, p.12. 이 사설과 함께 같은 날, 같은 지면에 배치한 3.1운동 관련 기사는 E. D. 소퍼(Dr. E. D. Soper) 인터뷰 "Say Korea Needs Japan: Missionary Finds People Unfit for Self-Government," *New York Times*, March 20, 1919; 소퍼에 대한 정한경(Henry Chung)의 반론 "Korea's Appeal: Asks an Opportunity to Show Fitness for Self-Government," *New York Times*, March 20, 1919가 있다. 사흘 후인 3월 23일에는 역시 소퍼에 대한 반박으로서 필명을 '한국의 아들'로 소개한 독자투고, A Son of Korea, "Korea's Independence." *New York Times*, March 23, 1919, p.36과 피츠버그대학 쥬드슨 크레인(Judson A. Crane) 교수의 2월 기고문을 뒤늦게 '한국의 아들' 투고글과 나란히 배치한 Judson A. Crane, *New York Times*, March 23, 1919, p.36이 있다. 이상 뉴욕 타임스 논쟁 관련, 이영관「국가적 위기와 역사, 문화의 중요성—『뉴욕타임즈』 3.1 독립운동 관련 친일 기사와 대응을 중심으로—」, 『韓國思想과 文化』 제60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11b 참조.

29) 뉴욕 타임스에 실린 3.1운동 관련 보도와 논쟁은 이영관, 「『뉴욕타임즈』를 통해 본 1919년 한국—3,1독립운동의 문화적 의의와 미국 여론」, 『韓國思想과 文化』 제57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11a; 앞의 글, 2011b 참조.

30) 선교사들의 편지와 보고서 등으로 엮어진 3.1운동 관련 목격증언기록으로 미국의 장로교동양관계위원회에서 소책자로 발간하여 언론에 공개하였다. The Commission on Relations with the Orient of the Feder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America, *The Korean situation : authentic accounts of recent events by Eye Witnesses,* New York, 1919; *The Korean situation Nr.2,* New York, 1920.

용하고도 우호적인 방법으로 실속 있는 성과를 얻도록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했다. 동양관계위원회의 10여 차례 회합 중에 4월 19일, 26일 두 차례의 회합에는 뉴욕의 저명한 일본인들도 참석했고, 이들은 즉각 본국에 상황을 보고하는 전보를 쳤다.[31] 한국 상황에 대해 일본 입장이 반영된 호소력 있는 정보가 긴급히 필요했다.

3. 서울프레스의 3.1운동 인식과 대응

1) 선교사와 3.1운동세력의 분리 전략

서울프레스가 동아시아 영어 매체 네트워크의 여론 동향에 직접적인 관심을 두는 만큼 영어권 국제여론에 대한 감시와 방어가 가장 우선적인 것이었다. 3.1운동에 대한 영어 신문의 첫 보도는 3월 3일, 일본의『재팬 어드버타이저(Japan Advertiser)』에서 고종의 장례식에서 일어난 '난동'으로 명명하는 것이었다. 3월 4일은 "경성의 본지 특파원에 의한 기사 송출 실패" 때문에 부득이 도쿄의 다른 신문을 인용 보도한다면서 "폭동을 일삼는 조선학생들"이라는 제목으로 도쿄의『호치(Hochi)』신문 등을 인용보도 했다. 3월 7일에야 특별보도 "비폭력 저항으로 봉기하는 경성-지도자들 비폭력과 비무장을 촉구하며 권력에 저항, 조선 전역으로 확산"을 시작으로 집중적인 보도가 이어졌다.[32]

중국에서의 영어 신문의 첫 보도는 역시 오사카발 기사를 단순 인용한 1919년 3월 4일『차이나 프레스(China Press)』와『더 노쓰 차이나 헤럴드(The North-China Herald)』였다. 3월 11일에는 한국 선천에서 활동 중인 선교사의 편지가 목격 증언의 성격으로『베이징 앤 톈진 타임스(Peking and Tientsin Times)』에 보도되었다.[33] 여기에 등장하는 "폭력적인 진압이

31) 김승태,「3·1독립운동과 선교사들의 대응에 관한 연구」,『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45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3, 126면.

32)『재팬 어드버타이저(Japan Advertiser)』, 1919.3.7. 이상 재팬 어드버타이저(Japan Advertiser)의 기사는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한국독립운동사 자료집 총서 제37집) 재팬 어드버타이저(Japan Advertiser) 3.1운동 기사집』, 류시현 번역·해제,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5.

33) 리공충(李恭忠),「현대 중국 민족주의 담론에 나타나는 3.1운동」,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

마치 '벨기에의 훈'(독일)과 같다"라는 표현은 두고두고 서울프레스의 볼멘 목소리를 자아내게 했는데, 『독립선동』에는 '우리는 벨기에의 훈이 아니다'라는 표현만 5번 나온다.

총독부는 더 이상 언론 통제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3월 9일 한국에서 활동 중인 서양인 선교사들과 비공개회합을 갖고 본격 행동에 돌입했다.[34] 3월 30일까지 총 5회에 걸친 모임에서 내무부장관 우사미(Katsuo Usami)와 서울프레스 사장 야마가타(Yamagata Isoh) 등 총독부 측과 미북장로회 애비슨(O. R. Avison), 모펫(S. A. Moffett) 목사 등 선교사 측이 만났고, 3.1운동의 전개에 따른 가장 긴박한 현안들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밝히고 대책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총독부로서는 직접적이고도 가장 핵심적인 '여론'을 청취하고 현 상황을 진단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그만큼 선교사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다.

서울프레스는 상황에 따라 일본 본토의 공격적인 여론으로부터 선교사들을 보호하면서 내부적 혼란 상황을 함께 풀어나갈 동반협력자로서 선교사들에게 손을 내미는 한편, 여의치 않을 때는 최소한 현 상황을 '관리'하는 정도에서 경고와 항의를 반복하는 것으로 논조를 가다듬었다. 처음에는 3.1운동세력을 선교사와 분리-즉 미국과 분리시키는 전략으로 출발했다. 이는 통감부 시절부터 유지되어오던 기조였다. 그러나 통감부 시절에는 한국인들의 '친구들(Friends)'로부터 한국인들을 분리하여 보호국의 통치 아래 수용하려는 경쟁자적 입장이었다. 3.1운동기 선교사 분리는 약간 다른 색채를 지닌다. 무엇보다 3.1운동세력과 선교사집단을 분리함으로써 이 운동의 이념적 정당성이 없음을 국제사회에 보이는 것이 필요했다. 즉 미개한 한국 민중들의 민족자결주의의 본 취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감정적 격화이며, 일부 선동자들에 의한 일시적 혼란사태로 사건을 봉합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던 것이다. 국제관

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3·1 운동 100년, 한국 사회전환의 시공간 지평' 학술대회 발표집, 2018년 11월 2일, 31면.

34) 총독부 관계자와 선교사들의 회합에 관해서는 김승태, 앞의 글 참조.

계에서 선교사를 적으로 돌리는 것이 가져올 부담과 손실도 걱정되지만, 무엇보다 이 운동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 우선적이었을 것이다.

『독립선동』의 첫 타이틀은 "한국인들의 반란에 연루된 외국인 없음"[35]이다. 『재팬 어드버타이저』 3월 9일 자가 인용 보도하고 있는 도쿄의 『호치』 신문 기사에서 "3.1운동의 배후로 미국 선교사 7명이 체포되었다"는 것은 명백한 오보라면서, 물론 서구의 급진적 사상들이 미국 선교사들의 학교를 통해 들어오는 것은 맞지만, 그러한 불온한 사상의 유입통로는 신문, 잡지, 서적, 여행자, 유학생 등 다양한 경로가 있으며, "선교사들이 일본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항상 협력 관계"에 있음을 힘주어 강조했다. 『호치』 신문이 내세우고 있는 전 조선총독부 관료 미도루 코마츠(Midori Komatsu)의 선교사 책임론 발언은 진의가 왜곡된 것으로, 30만에 달하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옛날 치외법권 시절의 허상에 빠진 채,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사상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으며, 아직 서구사상을 받아들일 만큼 문명화되지도 않은 한국인들에게 그런 사상을 퍼뜨렸다는 점에서 본다면 선교사들에게도 소요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코마츠 발언의 맥락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내무부장관 우사미(Katsuo Usami)와 법무부장관 고쿠부(Sangai Kokubu)가 발표한 "선교사 배후설 등 항간의 소문에 대해 당국이 철저히 조사한 결과 이번 소요사건과 선교사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공개성명까지 인용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외국인을 비난하고 혐의를 두는 것은 국제관계에 해롭다"라며 근거 없는 비난으로 국익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일침을 주었다.

3월 중순, 운동 양상이 지방을 중심으로 더욱 격화되어가고, 시위자의 대다수가 기독교 신자들인 것을 보고, 서울프레스는 "선교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36]이라는 논설로 이제 선교사들이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선동자들의 위법이 길어질수록 정부는 그들을 엄단할 수밖에 없다. 국가의 소란으로 수백만 명가량의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 여기에 선교사들이 좋은 역

35) Seuru Puressusha, "No Foreigners Implicated in Korean Uprisings"(3.14), Op. cit, 1919a.
36) Seuru Puressusha, "What Foreign Missionaries can Do Now"(3.22), Ibid.

할을 할 수 있다"라면서 사실은 선교사들이 먼저 민족자결주의의 본래적인 뜻을 설명하고 그 어떤 강대국이라도 한국인들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주었어야 했었지만, 그러나 이제라도 더욱더 도덕적인 용기를 내어 잘못을 바로잡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히려 선교사들은 3.1운동에 대한 폭력진압은 점점 더 확대되는 반면 언론보도는 극심한 통제로 왜곡되는 것을 보고 선교본부와 해외 언론에 편지를 보내 알리기 시작했다. 언론 대상은 중국과 일본 내 영어매체였다. 서울프레스의 논조는 바뀌었다.

> 선천의 선교사가 『베이징 앤 톈진 타임스』에 보낸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폭동에 대한 편지가 주목을 끌었다. 이 편지는 사건에 대해 매우 일방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일본인은 '벨기에의 훈족'보다 못한 것으로 표현된다. 일본인에 대한 혐의를 강조하기 위해 필자는 『대한매일신보(The Korea Daily News)』와 맥켄지(Mckenzie)의 『한국의 비극(The tragedy of Korea)』까지 인용한다. 선교사가 그 글을 쓴 동기가 무엇이건 간에, 그는 일본에 대한 반감을 즐기고 외부 세계에서 일본에 대한 불신이 조장되기를 원하는 것이 분명하다. 아마 한국인들에 대한 동정심에 사로잡혀 썼을 것이다. 물론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견해를 표현할 자유는 있지만, 일본인에 대한 감정을 그렇게까지 격렬하게 표현하는 것이 현명한 것일까? 그런 편지들은 한국 국민들이 더 강한 저항을 하도록 고무함으로써 정부의 일을 크게 방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가장 최선의 방책을 찾는 데에도 큰 상처를 입힐 뿐이다. 선교사는 한국 사람들의 독립에 대한 꿈이 절망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37]

또한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의 소요사태 배후에 선교사들이 연루되어있다고 의심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행동은 그 의심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면서 강한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나아가 "한국은 자치 능력이 없으며 일본이 물러가자마자 무정부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것을 그 자신도 알 것"이라고 꼬집으며, 그와는 반대로 어느 선동에도 가담하지 않고, 그의 지도하에 있는 어떤 학교와 교회도 휘둘리지 않는 참된 선교사도 많다고 강조

37) Seuru Puressusha, "Stories from Missionaries"(3.25), Ibid.

했다.[38] 나아가 서울프레스는 종교가 취해야 할 '중립성'의 의미에 대해 논한다.[39] 선교사들이 종교의 중립성 때문에 아무 행동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진짜 어떤 것이 종교의 중립성인지, 특히 무지와 오해로 잘못된 길에 들어선 한국인들의 몽매함을 깨우쳐주는 것이야말로 참된 중립성이며, 잘못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고 주장했다.[40]

4월 4일 평양 선교사 모우리(E. M. Mowry)가 3.1운동 주모자로 혐의를 받는 학생들을 숨겨주었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었다. 서울프레스는 '법에 의거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모우리가 죄가 없다면 무혐의로 풀려날 것으로 기대하지만, 모우리의 경우와는 달리 평양과 선천의 선교사가 한 짓은 묵과할 수 없는 반 중립적 태도라고 재차 강조하고 일본 언론의 적대적 공격으로부터 선교사들을 지키려 노력해온 데 대한 배신감을 토로하는 한편, 모우리 체포 사건에 대해 선교사들이 너무 과민해지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41]

미국인 선교사의 구금 및 재판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는 예민한 사안일 수밖에 없었다. 5월 7일 모우리 선교사가 재판에서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던 날,『차이니즈 베이징 데일리 뉴스(Chinese Peking Daily News)』가 사설에서 이 소식을 다루었다. 서울프레스는 전 인류의 관심사가 모아지는 [파리강화조약의 최종안이 제출된] 이날, 하필 모우리 선교사의 판결 소식을 1면 사설에서 다루는 데 대해, 평결 유지 여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한국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데 급급하다며『차이니즈 베이징 데일리 뉴스(Chinese Peking Daily News)』에 대해 '얼빠진 편집자'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42]

4월 15일 수원 제암리 학살사건(提巖里虐殺事件) 이후에는 미일관계의 심대함에 대해 완곡한 어조로 논평을 실었다.[43] 제암리 사건 발생 후 15일이

38) Ibid.
39) Seuru Puressusha, "Neutrality of Missionaries"(3.28), Ibid.
40) Ibid.
41) Seuru Puressusha, "Arrest of a Missionary"(4.9), Ibid.
42) Seuru Puressusha, "Crazy View of a Peking Editor"(5.7), Ibid.

나 지난 후, 사건과 관련하여 뒤늦게 유감을 표명하며 사후 처리에 대한 입장을 내었다.[44] 뒤이어, "한국에 기독교 탄압이란 없다"[45]는 논평이 이어지는 것은 제암리 교회 학살사건을 비롯하여, 3.1운동 시기 기독교 신자들의 유혈이 많고, 선교사들에 대한 압박이 가해지는 데 대한 국제여론이 비등해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인데, 급기야 이시자카(石坂龜治) 목사를 필두로 하는 일본 기독교 시찰단이 한국에 파견(5.20-6.11)되어 부산, 대구, 서울, 평양, 선천 등 전국을 시찰하고 돌아갔고, 이에 대해 내무장관 우사미가 이시자카 목사에게 보낸 공개서한을 서울프레스에서 "Missionaries and the Recent Disturbances in Chosen"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하기도 하였다.[46]

2) 폭력진압의 실상과 일본정부의 미승인 주장

선교사들이 주도적으로 유포하고 국제사회가 가장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일본 경찰과 헌병에 의해 저질러진 '가혹한 진압'에 대한 것이었다. 폭력에 대한 분노는 동정심을 기본 정서로 하는 종교에서 당연한 것이라 판단하고, 경찰진압의 내용적 측면과 일본의 입장에 대해 적극 해명하기 시작했다. 즉 경찰과 헌병들이 "한 순간의 흥분 속에" "자신의 의무를 다하려다 너무 멀리 나간" 것으로 짐작이 가지만, 한국어에 익숙한 선교사들이 한국 친구들의 말만 듣고 일방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인은 워낙 거짓말을 잘 만들어내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데" 기독교인조차도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거짓을 일삼기를 주저하지 않는 만큼 선교사들이 그 친구들로부터 청취하는 이야기들은 매우 심하게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47]

한국인들이 온갖 소문을 만들어 퍼뜨리는 데 능숙하다는 것은 당장 "윌슨 대통령이 일본의 굴레로부터 한국인들을 구해내기 위해 서울에 올 것"이라는

43) Seuru Puressusha, "Japanese-American Relations and the Trouble in Chosen"(4.24), Ibid.
44) Seuru Puressusha, "The Suwon Incident"(4.30), Ibid.
45) Seuru Puressusha, "No Persecution of Korean Christians"(5.6), Ibid.
46) Seuru Puressusha, Op. cit, 1919b, p.65.
47) Seuru Puressusha, "Stories of Cruelty"(3.20), Op. cit, 1919a.

소문에서부터 알 수 있으며, 시위현장에서 체포된 여학생이 고문을 당하고 사망했다거나 서대문형무소에서 8명의 죄수가 고문 끝에 사망했다는 등의 이야기들은 특히 '고문'과 관련하여 악의적의 소문들이 유포되도록 잘 짜인 것들이라고 주장했다.[48]

서울프레스에서 폭력진압에 대해 "흥분한 경찰 및 헌병들이 의무를 다하려다 너무 나간 것"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얼버무린 데 대해 선교사들이 직접 목격담을 담아 항의성 편지를 보냈다. 특히 경찰과 헌병은 물론이고 한국 내 거주하는 일본인들에 의한 폭력을 강하게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서울프레스는 말한다. "그들이 사랑하고 잘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눈앞에서 폭행당하고 걷어차이며 가혹하게 다루어지는 것을 목격한 선교사들이 분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이 "고위 당국의 승인을 얻은 행위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항변한다.

> 실상 경찰과 헌병, 군대는 가능한 한 온건한 방식으로 시위대를 다루어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고, 자기 방어를 제외하고는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이 명령은 처음에는 엄격하게 준수되었으므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상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불행히도 당국이 보여준 절제는 폭도들에게 약점을 나타내는 징표로 받아들여졌으며, 경비대들을 압도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일 때마다 시위대는 더 대담하고 도발적이 되었다.[49]

일부 일본 민간인들이 폭력사태에 가담한 것은 일본인 여성과 아이들에게 닥친 위협과 공포에 대한 방어라고 말하면서 일부 사례를 들기도 했다. 실상이 이러한데 선교사들은 한국인들 말만 듣고 색안경을 낀 채 일본인들만 비난한다고 항의했다. 보도를 통해 한국인 폭도들의 폭력적인 실상을 낱낱이 고발할 수도 있으나 한국 내 거주 하는 일본인들과 서로 간에 증오심만 높아질 것을 우려하여 보도를 유예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50]

또한 선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국인들이 '순한 양'처럼 비무장 평

48) Seuru Puressusha, "Mischievous Rumours"(3.21), Ibid.
49) Seuru Puressusha, "Stories of Cruelty Again"(4.1), Ibid.
50) Ibid.

화시위를 한 것이 아니라, 몽둥이와 돌멩이, 심지어 부엌칼까지 동원했으며, 곳곳에서 방화와 파괴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몇 달 전 인도 캘커타에서 일어난 소요사태에서는 수백 명의 인도인들이 살해되었고, 이집트에서는 영국 정부가 발포 명령까지 내리면서 소요사태에 대해 강력히 대처한 것을 보면 영국과 일본은 유사한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영국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본만 '벨기에의 훈'처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51]

영국과 일본이 비슷한 정책을 추구한다는 위 기사에 대해 다시 한 영국인이 편지를 보내왔다. 서울프레스가 주장한바, 이집트의 소요사태 동안 일어난 18건의 총검 사망과 한 아이의 두부 관통상 죽음이 과연 누구를 말하는지, 근거 있는 이야기인지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서울프레스는 "우선 이집트의 선동자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본국에 보고해줄 일본인 선교사가 없다"라는 말로 비아냥거리면서, 출처를 영국 로이터(Reuter) 통신으로 밝혔다. 이어 소요사태 동안 벌어진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선동자들은 '선전'의 기회로 삼을 것이 뻔하며, 그 누구도 인도와 이집트에서 폭력사태란 없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한국 또한 그렇다는 것이다. 말미에는 한국과 이집트의 차이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점이라면서, 단호한 정책과 계획적 무자비함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한국에서 일본이 추구하는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무엇인지 묻고 있다.[52]

또한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한국의 개혁과 진보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 대해 『재팬 크로니클』지가 현재 한국의 상황을 들어 비웃는 논평을 내자 서울프레스는 발끈했다. "영국이 인도와 이집트 식민통치에 대해 매년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영국의 인간적이고, 계몽적이며, 관대한 통치술에 대해 매우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으며, 영국이야말로 다른 국가들이 본받아야 할 사례라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 보도들이 사실이라면, 이집트와 인도 또한 지금 결코 평화롭고 질서정연하다고 할 수 없다"

51) Seuru Puressusha, "Disturbances in Korea and Egypt"(4.5), Ibid.
52) Seuru Puressusha, "Japanese and British Methods"(4.8), Ibid.

라면서, 강대국인 영국마저 때로 실패를 한다면 더 작고 약한 나라인 일본이 어떻게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느냐며 반문[53]하는 것으로, 식민통치 과정에 일어나는 무질서와 폭력사태가 한국이 유일하고 돌발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나아가 서대문형무소에 관련한 '소문'의 허황됨을 증명하기 위해 부록으로 '서대문형무소 탐방기'를 배치했다. 서대문형무소는 형무소라기보다 미개한 한국에서 차라리 기술학교라 불리는 것이 마땅할 정도의 재활능력 배양을 위해 제도적으로 힘쓰고 있고, 또한 위생면으로나, 문화면으로나 바깥 자유세상의 한국보다 훨씬 유익한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재소자들에게 행해지는 4-5일 간격의 더운물 목욕과 성서 보급에 대한 선전은 서양인들에게 무엇이 설득력을 발휘하는지 잘 아는 필력을 보여준다.[54]

재미있는 것은 이 서대문형무소 탐방기에 대해, 어느 서양인 특파원이 서울프레스 편집장 앞으로 보내온 '풍자적인' 편지이다.[55] 편지는 우선 "위생시설 혹은 기술학교라 부를만한 서대문형무소 탐방기 기사에 대해 감사"하며 무지하고 몰지각한 자들만이 그곳을 형무소라 부를 것이라고 상찬을 늘어놓은 뒤, 좁고 불편한 방에서 저질스런 음식과 의복을 제공받으며 고생할 친구들을 걱정하고 있을 많은 바깥의 친구들은 이제 안심해도 될 것이라고 말한다. 나아가 과연 그 기사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한국어 신문에도 실을 수 있을 것인지 묻고는, 돌연 자신이 오늘 만났다는 한 남자 이야기를 꺼낸다. 그 한국인은 무지막지한 폭행으로 살점이 떨어져나가고 뼈가 부러져서 최소 몇 주 동안은 앉아있기조차 불가능해 보였으며, 자신이 위생적이고 좋은 음식과 방, 기술교육까지 제공하는 서대문 시설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그가 자신을 빤히 쳐다보며 본인이 바로 그 붉은 벽돌 담장의 서대문 건물에서 나왔다고 했다는 것이다. 기자는 그가 말하는 곳이 건물에 대한 설명으로나 위치로나 서울프레스에서 선전했던 곳과 동일한 듯한데 만약 다른 곳이라면 부디 찾아

53) Seuru Puressusha, "When Even Britain Fails"(5.7), Ibid.
54) Seuru Puressusha, "A Visit to West Gate Prison"(5.11), Ibid.
55) Seuru Puressusha, "Deep-Rooted and Unjust Suspicion"(5.16), Ibid.

서 알려주는 것이 인류를 위해 가치 있는 일일 것이라고 비꼬았다.

서울프레스가 왜 이 편지를 첨부한 것인지 기사 아래에 덧붙인 말을 보면 나타난다. 한국에 거주하는 서양인들은 일본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부정적으로 색안경을 쓰고 보는 '부당하고 뿌리 깊은 편견'이 있다면서, 못 믿겠으면 직접 가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그렇듯 좁은 편견에 묶여 있는 한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불가능하고, 언제나 거듭 강조하지만, 선교사들과 일본 당국 간의 협조관계야말로 한국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결론을 붙이고 있다.

3) 민족자결주의에 대한 오해(誤解)와 자치능력의 부재

일본은 초기부터 3.1운동의 원인을 '민족자결주의에 대한 오해'로 인식했다. 일본 총리 하라(原敬)는 그의 3월 2일 자 일기에 벌써 "민족자결 등 근거 없는 언설에 영향을 받은 사실"[56]이라고 지목했다. 3월 5일 조선총독 하세가와(長谷川好道)의 두 번째 유고 제목은 「민족자결의 언설을 제지하는 유고」[57]였고, 이어 3월 6일 자 『매일신보』가 3.1운동 관련 최초의 발언으로 올린 사설도 「민족자결주의의 오해(民族自決主義의 誤解)」였다.

서울프레스는 무엇보다 3.1운동이 민족자결주의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자각에 바탕한 것이 아니라 오해로 인한 우발적 소요사태에 불과하며, 일부 선동자 집단 외에는 그 참가 동기 또한 비주체적이라는 점, 따라서 3.1운동이 이슈화하고 있는 민족자결, 다시 말해 자치의 능력이 한국인들에게는 없음을 강조한다. 서구 근대사상의 유입통로로 지목되었던 선교사들에게는 민족자결주의의 조항들이 모두 "전쟁에 직접 관련된 국가들에게만 적용"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기독교인들에게 설명하여 시위를 그만두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58] 또한 "그 누구도 민족자결주의 같은 고급한 서양사상을 단순하고 무지

56) 『現代史資料』 25 朝鮮 1, みすず書房, 1966, 105면. 原敬의 1919년 3월 2일 자 일기는 『原敬日記』 8, 乾元社, 1950, 174-175면.
57) 「民族自決の言說を戒める諭告」, 『朝鮮総督府官報』 호외, 1919.3.5.
58) Seuru Puressusha, "What Foreign Missionaries Can Do Now"(3.22), Op. cit, 1919a.

한 한국인들이 실제로 이해한다고 생각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국들이 정말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독립을 열망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신문 해독 능력이 있는 일부 청년들이 인도나 이집트 등의 독립운동에 대한 기사를 읽고 영향을 받았을 것이며 물론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도 받았을 것이지만, 그들이 한국인 전부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국적 양상처럼 보이는지, 영세상인, 소작인, 노동자까지 참여하고 있는 데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결론은 '속아서 그렇다'고 답한다.

> 그렇다면 왜 이런 폭동이 확산되고. 작은 가게나 소작인들, 노동자들까지 참여하는가? 그 대답은, 그들은 모두 선동자들에게 속거나 오도되어서 한국이 정말 독립하거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리라고 믿었거나, 혹은 그 운동에 합류하도록 고용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잘 알려진 대로, 단순하고 무지한 한국 대중은 쉽게 공갈범에 현혹된다. 많은 단순가담자들은 선동자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합류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 다른 경우에는 많은 노동자들이 '만세'를 외치도록 고용되어 높은 일당을 받았음이 확인되었다. 어느 지방에서 일어난 매우 재미있는 사례는 선동자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약간의 사탕을 쥐어주고 만세를 부르도록 설득했다는 것이다. 소년들은 한곳에 모여 선동자들의 신호를 기다리다가, 신호가 주어지면 깜짝 놀라서 '제국만세'를 외쳤다.[59]

"만세를 부르면 정말로 독립하는 줄" 알고 얼결에 무리에 섞인 자들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만세를 부르도록 높은 일당을 받고 고용된 만세꾼도 있고, 혹은 선동집단의 보복이 두려워서 겉으로만 만세를 부르며 따라다니는 자들도 다수이며, 어린 아이들에게는 몇 개 사탕을 쥐어주고는 신호에 따라 만세를 부르도록 이용했다는 주장이다.[60]

또한『뉴욕 타임스』3월 20일 자 논설 '이집트와 한국' 기사를 들어,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는 두 식민지 국가의 이슈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자치의 능력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며『뉴욕 타임스』가 매우 중요한 질문 제기하고 있다고 말한다. 즉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식민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

59) Seuru Puressusha, "Is the Agitation a National Movement?"(4.2), Ibid.
60) Seuru Puressusha, "Is the Agitation a National Movement?"(4.2), Ibid.

고, 문명화된 일본에 의해 점진적으로 자치를 배워가야 한다는 것을, 일본이 어떻게 한국을 위해 일하고 헌신하는지 아는 사람들은 다 인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이 한국에서 행정 업무에 실수를 저지른 것은 부인할 수는 없지만, 언제나 이를 바로 잡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어느 국가에나 불평분자들이 있기 마련"이고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에서 보다 나은 상태가 목격될 것이라고 말한다.[61]

'자치능력'에 대한 언급은 4월 6일 자 식목일 관련 기사에서도 강조된다. 서울프레스는 '나무심기 운동'이라면 전근대 조선으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는데, 근대적 일본의 행정으로 나무심기와 산림보호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자랑하듯 이야기한다. 벌목은 엄격히 통제되는 반면, 지난해 식목일에도 2천만 그루 이상의 묘목이 심어졌던바, 수년 안에 한국은 일본처럼 푸르른 산림을 갖게 되리라는 포부까지 설명한다. 그런데 지금은 국내 소요 사태 때문에 나무심기도, 이미 성장 중인 숲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도 인력과 시간 면에서 불가능해졌다고 토로한다. 심지어 일부 한국인들이 벌써 독립이라도 된 양, 제멋대로 굴며 마구잡이 벌목을 하는 통에 몇 년 전 심은 어린나무들이 뽑혀나가고 있는 실정 앞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한국인들은 설사 자치권을 준다 한들 그것을 행사할 능력 자체가 없음을 알 수 있다고 조롱했다.[62]

이상, 서울프레스에서 긴급 소책자로 발간하여 배포한 『독립선동』의 내용을 가장 강조점을 둔 논지별로 살펴보았다. 무엇보다 선교사와 3.1운동세력의 분리 전략으로써 3.1운동의 약화는 물론이고, 3.1운동이 선교사들의 동의를 획득한, 이념적으로 설득력을 갖춘 운동이 아님을 강조하고자 했다. 둘째, 폭력진압의 실상과 일본정부의 미승인을 주장함으로써 '폭력성'의 파급효과를 차단시키고, 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유인하도록 했다. 셋째, '민족자결주의에 대한 오해'와 한국인들의 '자치능력'의 부재를 주장하며, 3.1운동의 비주체성과 우발성을 부각시키고, 일시적인 폭동사태로 규정되도록 강조했다.

---

61) Seuru Puressusha, "Japan's Efficient Administration of Korea"(4.10), Ibid.
62) Seuru Puressusha, "Destruction of Forest"(4.6), Ibid.

4. 맺음말

총독부 기관지 서울프레스는 국제사회 공론의 장에 한 구성원으로서 발언을 하고, 동아시아 영어 매체 네트워크에서 쏟아내는 갖가지 배일(排日) 여론을 방어해내는 대항담론의 기지 역할을 수행했다. 1919년 3.1운동이 발발하자, 서울프레스는 긴급 기사 묶음으로 소책자『독립선동』을 출판하여 배포했다. 3.1운동이 식민 당국의 예상을 뛰어넘어 전국화・장기화되고 국내적 상황을 넘어 대외 여론에서 '진압의 폭력성'에 대한 비난이 폭등하고 선교사를 중심으로 한 종교탄압 주장으로까지 확대되자, 기사복제본 형식의 긴급 소책자를 동원하여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섰던 것이다. 일간지로서 지면 신문은 뉴스로서의 유통기한이 짧고, 하루만 지나도 벌써 묵은 정보가 되지만, 선별적으로 묶여 책으로 편집된 신문기사들은 기획의도에 부합하는 유용한 발언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보의 활용 면에서도 훨씬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발간된 소책자 등의 식민지 한국 관련 정보는 동아시아 영어 매체 네트워크는 물론 국제여론의 집결지 미국 내에서 조직적으로 배포되었다. 미국 내 일본 여론전의 기지는 뉴욕을 중심으로 한 동양정보국(1909)-동서뉴스국(1913)이었고 이들 기관의 설립자 및 주요 필진들이 서울프레스 출신들이었다.

서울프레스에 나타나는 3.1운동 관련 논지와 대응구조는 첫째 3.1운동세력과 서양인 선교사를 분리하여, 운동의 세력을 약화시킴은 물론 이념적 정당성을 소거하는 것, 둘째, 선교사들에 의해 대외적으로 유포된 폭력적 진압의 실태는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관점에서 과장되었으며, 일부 실재했었던 폭력사태도 일본 정부의 승인하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폭도들과의 대치 상황에서 나온 우발적이고도 공포심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것, 셋째, 3.1운동은 한국인들의 분명하고도 주체적인 자각에 의한 운동이 아니라, '민족자결주의'의 오해에서 비롯된 소동에 불과하고, 전 국민적 운동이라기보다 일부 선동자들의 조작된 운동이며, 한국은 자치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요컨대 일본은 3.1운동을 전승국으로서 국제사회에 한몫 끼이기 위한 자기가치 증명에 대한 하나의 흠결이자 제국의 통치능력에 대한 중간성적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부정적인 국제여론의 방향을 돌려놓고자 했던 것이다. '민족자결주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외인론'과 결국은 식민통치의 실패일 뿐이라는 '내인론'의 갈등은 주지하다시피 3.1운동 이후 더욱 적극적인 국제여론전의 명분으로서 '문화정치'로 포장되었다.

▮ 참고문헌

Seuru Puressusha, *The Korean "Independence" Agitation—Articles Reprinted from the "Seoul Press"*, Seoul Press, 1919a.
Seuru Puressusha, *Administrative reforms in Korea*, Seoul Press, 1919b.
Japan Society (New York, N.Y.), *About Japan*, New York: The Society, 1920.

권휘민,「통감부의 선교사 정책과『서울프레스(The Seoul Press)』」,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16.
김승태,「3·1독립운동과 선교사들의 대응에 관한 연구」,『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45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3, 105-159면.
김지형,「대한제국기 영자언론의 한국인식과 표상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6.
리공층,「현대 중국 민족주의 담론에 나타나는 3.1운동」,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3·1 운동 100년, 한국 사회전환의 시공간 지평' 학술대회 발표집, 2018년 11월 2일.
이영관,「『뉴욕타임즈』를 통해 본 1919년 한국—3.1독립운동의 문화적 의의와 미국 여론」『韓國思想과 文化』, 57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11a, 289-318면.
_____,「국가적 위기와 역사, 문화의 중요성—『뉴욕타임즈』3.1 독립운동 관련 친일 기사와 대응을 중심으로—」『韓國思想과 文化』제60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11b, 243-279면.
정용석,「1911-1936년간 총독부재정의 운용방식에 대한 일고찰」,『경제사학』제41권 3호, 경제사학회, 2017, 395-436면.
정준영「경성제국대학과 식민지 헤게모니」,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9.
정진석,『언론조선총독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Chung, Henry, *The Case of Korea: a collection of evidence on the Japanese domination of Korea, and on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New York: Chicago [etc.] Fleming H. Revell company, 1921.
Masato Matsui, "The Russo-Japanese Agreement of 1907: Its Causes and the Progress of Negotiations", Modern Asian Studies, Vol.6, No.1, 1972, pp.33-48.
Montaville, M.A, Flowers, *The Japanese conquest of American opinion*, New York: George H. Doran, 1917.
O'Connor, Peter, *English-Language Press Networks of East Asia, 1918-1945*, Leiden: GLOBAL ORIENTAL, 2010.
Sean, Denny, "The Tapestry of Colonial Communication: Colonizing Discourses in the Seoul Press", Degree of Master, Graduate Department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Toronto, 2010.
Wildes, Harry E., *Social Currents In Japan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pres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27.

【Abstract】

March First Movement: the *Seoul Press*, Counter-discourse, and International Opinion—A Study Based on *The Korean "Independence" Agitation - Articles Reprinted from the "Seoul Press"* (1919.5)—

Park, Bo-Young*

The Seoul Press, which was an organ of the Governor-General's office, took its place within the international public opinion and developed a counter-discourse against the anti-Japanese sentiments pouring out of the East-Asian English-language press networks. In the wake of the March First 'Mansei' Movement in 1919, the Seoul Press printed and distributed in emergency a series of articles gathered in a pamphlet titled The Korean "Independence" Agitation - Articles Reprinted from the 'Seoul Press'. The March First Movement went beyond what colonial authorities could anticipate to become a prolonged, nationalized phenomenon. It also became more than a domestic affair as criticisms on the 'violence of repression' escalated in foreign public opinion. It even became a pretext for religious repression that targeted missionaries. In such circumstances, the mobilization of emergency pamphlets appeared as a strategical strike in the war of public opinion. Information related to the colonization of Korea, as published by such pamphlets, was systematically disseminated not only to East-Asian English-language press networks, but also to the hub of international public sentiment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where the Oriental Information Bureau (1909) and the East and West News Bureau (1913) operated, was Japan's base for public opinion maneuvers in the United States. The founders and main writers of these two organs were indeed affiliated to the Seoul Press.

The Seoul Press first undermined the influence of the March First Movement and suppressed any ideological legitimacy by segregating the Western missionaries from the movement. In addition, it claimed that the violent repression as described abroad was in fact a unilateral exaggeration; furthermore, it had not taken place with the ap-

* Research professor, Dept. of Histor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robat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 but rather accidentally somewhat and as a result of fear of the confrontation with rioters. Finally, it argued that March First was not a movement based on the Koreans' autonomous self-consciousness, but only a disturbance stemming from the misconception about the 'principle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 therefore, it was only a movement manipulated by a handful of agitators rather than a national movement.

Japan's goal was to change the way the international opinion should look on the March First Movement, which could then be qualified as a halfway report on the empire's ability to rule and the necessity to prove its own worth in order to be considered by the international opinion as a victorious nation. Following the Movement, the antagonism between the "extrinsic factor approach" and the "intrinsic factor approach" paved the way for the "Cultural policies" as a façade to mask a more aggressive strategy to win the war of international public opinion.

Keywords: March First Movement, the Seoul Press, Missionaries, Self-Determination, International Public Opinion.

접수일: 2019.07.03 || 심사일: 2019.07.16 || 게재확정일: 2019.08.09